

유럽에서 주목받은 전주시 탄소기술

파리 'JEC World 2018' 에서 수출계약·거래처 발굴·MOU 체결 성과... 현지 지사화 협의 중

전주시와 전북도가 세계 탄소산업 중심지인 유럽시장 공략을 통해 국내 탄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시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 노르빌팡트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복합재 박람회인 'JEC World 2018' 에서 전주시 탄소관련 기업들이 수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탄소기술 및 제품 마케팅, 기술협력, 컨퍼런스 등이 펼쳐지는 이 박람회는 전 세계 약 1300여 개의 복합재료 업체와 113개국 약 4만 여명의 복합재료 관계자가 참여, 시와 전북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이번 박람회에 국내 탄소수용기업 8개사와 함께 공동 전시부스를 운영했다.

대표적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제1호 연구소기업인 '솔라시도코리아'는 이번 박람회에서 독일 B사와 탄소복합재 기술활용 태양광모듈에 대해 MOU체결 후 12일 100만 달러에 달하는 구매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주)피치케이블은 기존 거래처인 Declic과 Group finot 등에 이어 Concepturbain과 Plas Eco 등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탄소



전주시는 현지시간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 노르빌팡트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 탄소복합재 박람회 'JEC World 2018' 에서 전주시 탄소관련 기업들이 수출 계약을 체결,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융합산업연구조합, SAMPE CHINA는 한·중 탄소산업 발전과 관련분야 공동 협력을 위하여 상호 업무협약(MOU) 체결 및 MAI카본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선진기술 교류와 연구역량을 향상시켜 국내탄소산업 메카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번 박람회의 제품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기업들은 한국무역투자진

흥공사(KOTRA) 파리무역관 임채근 관장, 지사화팀 송희용 과장과 함께 현지 지사화 사업에 대해 논의한 뒤 향후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지사화 사업은 해외지사 설치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며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탄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의 디

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전주시 탄소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관련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를 이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전주시는 앞으로도 탄소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고 관련 기업들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3월 9일 금요일 해돋이 06:51 | 해질 18:33 달돋이 00:51 | 달질 11:24

날씨 가끔 구름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아짐

군산	익산	완주	무주
-1~8	-3~10	-3~9	-5~7
김제	진주	진안	정수
-1~8	-1~9	-3~6	-4~7
부안	임실	남원	고성
-1~8	-4~9	-3~10	-1~9
정읍	순창		
-2~9	-3~10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자원활동가 모집

11개 시립도서관서 16일까지

대한민국 책의 도시 전주시가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돕는 '2018년도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의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오는 16일까지 평생교육의 출발점이자 책 읽는 도시 구현을 돕는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자원활동가를 11개 시립도서관에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자원활동가 모집에는 아이와 책을 사랑하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후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오는 21일부터 △북스타트 자녀와 함께 하는 행복한 책 읽기 △영유아 책놀이의 실제 △부모들과

아이들 사이에 책과 놀이가 있다면 △책놀이 사례 발표 및 시연 △그림책 심리학, 그림책으로 마음 읽기(부모교육특강)를 주제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전주시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는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이자 책을 통한 아가양육의 좋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는 자원활동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주시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게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해 줄 수 있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자원활동가 모집에 관심 있는 시민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시립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완산구, 1분기 사회복지요원 복무교육

전주시 완산구는 8일 완산구청 8층 강당에서 사회복지요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청 및 18개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 11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1분기 사회복지요원 복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공무원행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한 자로서 평소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 사회복지요원 13명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이날 특강은 제이비커리어(주) 교육담당인 임소영 강사를 초청하여

'Let's play 진로준비'라는 주제로 사회복지요원들의 소집해제 이후 직업과 진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특강 후에는 안전 및 복무기강 교육과 사회복지요원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봉근 행정지원과장은 "사회복지요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도 보다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시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면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전교조 전북지부 상근교원 전임 허가

전북도교육청이 전교조전북지부 상근교원 전임을 허가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8일 "2018년 전교조 전북지부 상근교원의 전임을 허가한다"며 "해당 학교와 관계기관은 휴직 업무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상근교원 전임 허가 대상자는 전교조 전북지부 정회원인 김형배 교사(서림고) 1명이다. /김민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다양한 다문화 행사 '눈길'

완산도서관, 체험의 날 · 찾아가는 멘토링 · 인형극 등

전주시립완산도서관은 매주 목요일을 '다문화체험의 날'로 정하고 연중 다채로운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완산도서관이 운영하는 주요 다문화 프로그램은 '다문화체험의 날'과 '찾아가는 다문화 멘토링', '다문화 인형극' 등이다.

먼저 '다문화체험의 날'은 8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전주시립완산도서관에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일본 등 각국 이주여성들로 구성된 교사들이 자국의 민속의상을 입고 동화읽기와 놀이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3월 둘째 주부터 '찾아가는 다문화 멘토링' 사업을 통해 다문화 멘토 4명이 주 1회 다문화 한 가정을 직접 방문, 아동독서지도와 자녀 교육 정보교류 등 독서 멘토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 이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학령기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부족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어려서부터 다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5~7세 유아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주민들로 구성된 다문화 인형극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산도서관 2층에 위치한 다문화 자료실에는 영어와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 각국의 언어로 된 다양한 도서 8000여 권이 소장돼 있으며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채규남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